

대구 앞산의 문화·생태자원 관리방안

전 영 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

1. 서론

대구분지의 남쪽을 에워싸는 앞산은 인구 250만 대구시민들에게는 이름만큼이나 친숙하다. 앞산의 지명유래는 분분하다. 그러나 우리식 사고로 얘기한다면 앞산은 내가 살고 있는 터전 앞에 위치하는 산이라는 의미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 이처럼 앞산은 예로부터 대구지역 주민들에게는 정감 어린 곳이다. 즉, 분지의 북쪽을 둘러싸는 팔공산이 대구분지를 동에서 서로 흐르는 금호강에 의하여 지역주민들과 단절되어 있는 반면, 앞산은 이러한 장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한결 쉬웠다.

앞산은 동편에 용두산, 남편에 청룡산 등 예로부터 신성시 해왔던 동물인 용과 관련된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앞산 일대가 이 곳 주민들에게는 민간토속 신앙지로서도 중요한 곳이다. 현대문명이 발달하고 우리나라 제 3의 거대도시인 대구광역시가 위치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간토속 신앙적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도 정월 대보름날, 삼월 삼짇날, 한가윗날에는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소원을 비는 곳이기도 하여 현대문명과는 동떨어진 광경이 자주 목격된다. 그러나 대구 시민들에게 이토록 친근한 산임에도 불구하고 앞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대구시민은 많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대구시민들이 앞산을 이용할 줄만 알았지, 앞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호할 줄은 몰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250만 대구광역시민의 자연공원으로서 매우 소중한 앞산의 문화·생태자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산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앞산의 보호차원에서 현재 앞산에서 나타나는 환경 제반문제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앞산의 문화·생태자원

1) 민간토속 신앙지의 모체

앞산 여러 곳에는 골짜기들이 발달하고 있으며, 골짜기마다 많은 사연들을 간직하고 있다. 대구시민들에게는 이름만 대도 금방 아는 골짜기로 안지랑골, 고산골, 용두골, 무당골, 매자골, 달비골, 큰골, 강당골, 삼정골, 수발골, 장암사골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지랑골, 무당골, 고산골에는 지금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좋은 날을 택하여 골짜기의 바위절벽(하식애 : 흐르는 물에 깎여서 된 바위절벽)이나 굴(하식굴 : 흐르는 물에 깎여서 된 작은 굴, 풍화굴 : 기반암 절리면을 따라서 풍화가 진행된 곳에 형성된 굴) 곳곳에 촛불을 켜 두고 소원을 빌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촛불기원이 때로는 기도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산불의 발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실제로 앞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기도자나 등산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유형의 산불방지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2) 귀중한 문화역사유적

앞산에는 신라시대의 고찰에서부터 서원, 재실, 비석, 현대 문인들의 시비와 호국위령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역사유적이 분포한다. 이 중에서도 고려의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과 팔공산 일대에서 대접전한 동수회전에서 대패를 하고 팔공산으로부터 탈출하여 잠시 은거했던 큰골의 은적사와 은적굴, 안지랑골의 안일암과 왕굴, 달비골의 임휴사 등은 팔공산 일대와 더불어 왕건의 도주로로 유명하다.

또, 용두산에 위치한 용두토성과 안지랑골을 중심으로 대덕산 일대를 에워싸는 대덕산성은 이 지역의

전략적 요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용두산성은 현재 고산골 입구의 동편에 위치하는 용두산의 용머리 부분에 축성된 토성으로서 축성시대는 알 수 없지만, 축조양식이 대구 달성과 유사하여 원삼국 시대 말기 또는 삼국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성의 둘레가 약 400m에 이르는 본 토성은 대구에서 청도로 이어지는 신천변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이다. 성곽 둘레가 약 3km에 달하는 대덕산성은 산 능선의 자연암벽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암벽이 없고 평탄한 곳은 주변의 자연석을 활용하여 축성하였다. 대덕산성은 자연암벽 외에는 성벽이 대부분 훼손되어 축성시기를 판단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축성양식이나 규모 등으로 판단할 때 삼국시대 후기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앞산의 여러 골짜기로부터 운반되어온 사력질의 퇴적물들이 골짜기 입구 주변에 퇴적되어 부채꼴 모양의 선상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는 지식묘를 비롯한 선사시대의 유적들이 다량 분포하고 있어서 선사문화유적의 보고이기도 하다. 특히 앞산 달비골에서 발원하여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대구 서쪽의 진천천 주변에는 대구 신천변 일대와 더불어 청동기시대의 문화유적이 풍부하다.

3) 수려한 자연환경

앞산 일대는 중생대의 퇴적암과 화산암인 안산암질암과 그리고 관입암인 화강반암·규장암 등의 기반지질로 구성되어 있다. 즉 백두산·한라산·울릉도·독도·한탄강 일대가 신생대에 형성된 화산지형이라면, 대구 앞산은 의성의 금성산·청송의 주왕산·밀양의 천황산 광주의 무등산 등과 함께 중생대에 형성된 화산지형이다. 따라서 앞산에는 화산지형에서 볼 수 있는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가 여러 곳에 발달하고 있다. 또 절리가 잘 발달하고 있는 기반암에는 절리를 따라서 풍화가 진전되어 형성된 굴를 비롯하여 각종 풍화 미지형들이 발달하고 있는데, 고산골 토굴암 위쪽에 위치하는 토굴, 안지랑골의 왕굴과 왕굴 일대에 산재하는 가마솥바위(나마 : gnamma), 큰골 은적사의 은적굴, 달비골 원기사의 황룡굴 등은 이러한 지형에 해당된다.

청담 이증환은 그의 저서 택리지의 「卜居總論 山水條」에서 대구의 앞산과 관련하여 “大丘瑟瑟山內有湧泉之石”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청담의 표현에 근거하면, 대구 비슬산 내에서 샘과 관련 있는 바위는 달비골 내 원기사의 황룡굴 입구에 있는 황룡샘이나 임휴사 내의 석샘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임휴사의 석샘은 최근에 대응전의 확장공사로 인하여 없어져버렸다. 대신에 대응전 앞마당에 수도관을 연결하여 과거 석샘의 물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이곳의 물은 위장병에 좋다는 말이 예로부터 전해내려 오고 있다. 반면 원기사 내에 있는 황룡굴의 황룡샘은 동굴 천장으로부터 유출된 물이 고여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굴천장으로부터 물이 유출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동굴 입구에 있는 황룡샘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택리지에 언급되어 있는 이른바 물이 솟아 나오는 바위는 황룡굴의 황룡샘이 아니라, 지금은 없어진 임휴사의 석샘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안지랑골의 안일사 뒤편에 위치하는 거대한 절벽바위(일명 해골바위 또는 미타바위로 불리움)는 안산암질 수직절벽의 노출암반으로 풍광이 수려함은 물론 지역민들에게는 암벽등반 장소로서도 유명하다. 또 황룡굴의 황룡샘 옆에 있는 쌀바위, 앞산 주능선의 사자바위와 코끼리바위, 대덕산 정상 남편에 위치한 나팔바위, 용두산 앞자락(고산골 계곡 물이 신천에 유입되는 부분에 위치함)에 있는 용두바위를 비롯하여 소·두꺼비 등 각종 동물 모양의 다양한 형상을 보이는 큰 바위들이 산재하고 있어서 이 곳을 찾는 이로 하여금 친근감과 신비스러움을 더한다.

4) 다양한 동·식물 생태계

앞산 일대에 나타나는 동·식물은 식물의 경우 108과 542종이, 동물의 경우 너구리·오소리·고라니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음이 학계의 연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앞산을 찾는 탐방객이 많아지면서 각종 편의시설물의 설치증대와 무분별한 입산으로 크고 작은 많은 등산로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토양유실의 가속화를 초래하여 이 곳의 동·식물 생태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어 생태계를 심각히 교란시키고 있다.

3. 앞산의 개발과 생태계 파괴

앞산이 팔공산과 더불어 대구시민의 휴식처로써, 대구지역의 생태공원으로써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대구시의 자연공원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앞산은 지방정부의 무원칙·무환경적인 개발논리와 이용주민들의 환경의식 결여 등이 어울려져 현재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 이른바 자연공원이라 함은 인위적인 시설물설치가 최대한 억제된 상태에서의 생태공원이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앞산공원을 한 번이라도 둘러본 사람이라면, 앞산을 더 이상 자연공원이나 생태공원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앞산 근방에 일단 들어서게 되면, 도심지의 어느 상가 못지 않게 밀집된 각종 상점을 접하게 된다. 앞산 입구 근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산의 초입에 들어서면 각종 놀이시설물이 있는 유기장은 물론 지나치게 많은 운동시설물과 주 등산로를 따라서 갈라지는 여러 갈래의 소 등산로는 앞산의 생태기능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느낌이다. 실제로 앞산의 고산골에는 오솔길 수준의 작은 등산로가 지나치게 많다. 심지어 어떤 곳은 주 등산로 100 여m 구간 내에 오솔길 수준의 작은 등산로가 10여 군데나 나타나는 곳도 있다. 이러한 곳에는 어김없이 토양의 유실로 식물이 자랄 수 없거나 자라고 있더라도 영양상태가 좋지 않을뿐더러 야생동물의 통로를 근본적으로 차단시켜, 동·식물 생태에 악영향을 준다. 특히 비파산 능선으로부터 큰골에 걸쳐서 설치된 앞산케이블카는 지난 1974년에 완공되어 현재에도 가동 중에 있다. 앞산케이블카는 앞산의 수려한 지형경관을 흉하게 만들어 놓았음은 물론 케이블카 승강장이 있는 비파산 능선은 많은 사람들의 접근으로 토양이 유실되어 기반암이 흰히 속내를 들어내 있다. 심지어 지표에 드러난 기반암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발길에 닳아 반들반들 윤이 날 정도이다. 그러면 산정상부는 어떠한가, 산성산에는 항공무선표지소와 헬기 착륙장이, 앞산에는 경찰통신대가 설치되어 그야말로 앞산의 생태를 3원 입체적으로 파괴하는 기분이 든다.

앞산은 민간토속 신앙지로서 대구시민들에게는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어서 해 마다 길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일부 기도자와 탐방객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산불은 그나마 남은 앞산의 생태를 초토화시킨다. 이 밖에도 앞산에는 많은 사찰이 들어서 있거나 새롭게 들어서고 있는데, 기존 사찰의 경우 사찰의 대대적인 보수나 확장공사로 인하여 생태계 훼손이 심하다. 특히 최근에 신축된 사찰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심각하다. 예컨대, 신천대로의 용두교와 장암사 사이에 최근에 들어선 법왕사의 경우 앞산 자락에 공사중인 사찰의 부대시설과 조경시설로 인하여 앞산의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또, 조경식으로 사용된 거대한 자연석은 과연 정식 허가를 받고 설치했는지, 허가를 받았다면 누가 그러한 허가를 해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점점 희색의 빌딩숲으로 변해가는 대구에서 앞산의 생태기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대구를 환경적으로 살찌우고, 대구시민의 올바른 정서 함양을 위해서라도 앞산이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단순한 경제논리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4. 현실적 대안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가 주도의 성장위주 경제개발정책은 우리나라 국토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1960년대 이전만 해도 대구분지를 남과 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앞산과 팔공산은 물론 대구분지 내의 자연생태계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국가 주도로 시작된 경제개발정책이 대구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대구시의 급속한 팽창과 산업화로 대구분지 내의 자연생태계는 심하게 훼손되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나마 생태계가 비교적 양호했던 팔공산과 앞산도 대구시의 팔공산·앞산 자연공원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이 지역의 환경 훼손 상태는 그 도를 넘어서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대구분지 내의 자연생태계가 복구 불능 수준에 이른 점을 교훈으로 삼아 앞산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50만 대구시민들의 휴식처로써, 또한 자연생태공원으로써 앞산이 충실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등산안내지도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정보는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등산로 표시의 오류를 비롯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위치 정보의 오류 등 많은 결함이 있어서 이 곳을 찾은 탐방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산 생태계의 종합관리 차원에서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대학이나 일반 전문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히 제작된 새로운 등산안내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앞산 일대를 대상으로 정밀 자연생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관에서 발주하여 완성된 자연생태조사보고서는 실용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차제에는 동·식물의 생물적 요소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처인 지형·지질·토양·수계 등 무생물 요소를 비롯하여 등산로·각종 인공시설물 등 모든 인위적 환경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산 생태계 관리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등산로의 경우 폐쇄하거나 구간 휴식년제를 도입하여 생태계 파괴의 근원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학술적으로 중요하거나 경관상 수려한 지형자원과 우수 식생지역을 발굴하여, 대구시의 기념물이나 문화재로 지정하여 생태자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셋째, 유서 깊은 지형자원이나 경관이 수려한 지형자원 또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지형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조례의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지형자원”조항을 신설하여 각종 개발 시 지형분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로 대구지역에서는 소중한 지형자원들이 지난 시절 개발의 과정에서 무참히 훼손된 사례가 많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중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다. 신천변을 따라서 나타나는 용두산(고산골 일대가 용의 머리에 해당됨)은 용의 형상을 보이는 산으로서 대구에서는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산으로 생각해온 곳이다. 그러나 과거 앞산순환도로와 신천대로 공사 시 훼손되어 신비스러운 본래 용의 머리는 더 이상 볼 수 없게되어 심히 유감스럽다.

넷째, 향후 앞산 내에서의 인위적 시설물 설치의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공익을 위한 시설물설치 또는 사유재산 권한 행사가 필요할 때에도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 앞산 일대에 신축된 사찰의 경우 엄청난 생태계의 파괴가 있었음은 앞서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남구청 관련 부서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 시민환경단체 주도의 앞산환경보호활동에 충분한 행·재정 지원을 통하여 앞산환경보호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한다.

여섯째, 앞산은 민간토속 신앙지로서 지역민들에게는 명성이 나 있다, 그러나 일부 기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고산골·안지랑골·무당골 등의 기도처와 이 곳에서의 기도행위는 우리민족 고유문화 전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남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상기 기도처 중에서 몇 곳을 지정하여 이 곳에서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렇게 한다면 기존 기도자들과의 마찰을 없앨 수 있고 산불방지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대구경실련 환경센터, 2000, 자연을 닮고 싶은 아이들, 유럽.
- 대구광역시, 2001, 대구 자연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 대구광역시·경북대학교, 2000, 비슬산(속집), 명인문화사.
- 대구광역시 남구문화원, 2001, 대구의 앞산, 경북인쇄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2001, 비슬산 생태계 보고서.
- 대구직할시·경북대박물관, 1990, 대구의 문화유적.
- 윤여정, 1998, 한자에 빼앗긴 토박이 땅이름, 향지사.
- 전영권, 2000, “금호강 유역의 역사지리적 문화”, 월간 대구예술, 8, 16-19.
- 허경진 옮김, 1998, 택리지, 한양출판.